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서양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후쿠자와 유키치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희*
oooooh55@korea.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 |
| 2. 연구 방법 | 4. 마치며 |
| 3.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자료와의 비교 | |
| 3.1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 | |

主題語: 미구회람실기(Beiyoukairanzitki), 서양사정(Seiyouzizyou), 세카이구니즈쿠시(Sekaikunizukusi), 서양 지명 표기(the foreign place notation), 음역 표기(sound translation notation)

1. 들어가며

본고는 명치기 서양 지명의 표기 실태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옛 일본식 표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이하, 『米歐回覽實記』로 약칭함)는 1871년 구미(歐美)로 파견된 명치 정부의 고위 관료와 실무진들이 구미에서의 활동 내역과 견문 내용을 일기와 같이 상세히 기록한 대외적인 공식 보고서이다. 본 자료는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전권대사(全權大使)로 하는 명치 정부의 젊은 지도자들이 50명에 가까운 간부들을 이끌고 1년 10개월 동안 구미 12개국을 돌아보며 작성한 구미시찰기(歐美視察記)이다. 『米歐回覽實記』는 전 100권, 2200페이지에 달하는 대기록으로 여기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순방(巡訪)한 구미(歐美) 12개국의 지명 표기 이외에도 지리와 지형, 문화, 역사 등에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어, 단순히 어학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사, 문화 교류사, 일본인의 해외 체험에 관한 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米歐回覽實記』는 구미 각국을 방문하며 보고 들은 것을 일본어로 표기하고 기록한 국가의 공적인 실황(實況) 보고서로서, 당시 통용(通用)되던 일반적인 표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자료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에 본고에서 『미구회람실기』라는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사절단에 참여한 서기관과 실무진들이 구미 각국을 순람(巡覽)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한 각국에 대한 지명 표기들이 당시의 지명 표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이 구미 각국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에도 막부는 1860년에 미국의 발달된 제도와 문물을 조사, 시찰하기 위하여 견미(遣美)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었다. 또 에도 중기에는 서양 선교사와의 문답(問答)을 통하여 서양 세계를 소개하는 지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명치기 이전 왜국시대부터 서양과 제한적인 교류를 통하여 서양의 사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서양 지명 표기는 이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 일행의 결과물이나 서양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여기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 표기와 전통적인 옛 일본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세카이구니즈쿠시(世界国尽)』(1869), 『서양사정(西洋事情)』(1866)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명 표기에 있어 일본 표기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한섭(李漢燮, 1999)은 『서유견문(西游見聞)』에 나타나는 지명 및 인명 표기를 일본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일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어에 일본식 지명 표기가 언제부터 유입되어 어떻게 정착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어 어휘 성립의 일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영숙(鄭英淑, 2000)은 개화기(開化期)의 주요 문헌에 나타나는 외국 지명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표기의 생성 과정과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명 표기는 일본의 영향력이 심화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 개화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지명 표기의 사용 실태 및 변천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유입되어 정착되었는가를 중국과 일본 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명치 후반에 간행된 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수 있지만, 표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명치 초기의 실상을 밝힌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대한 기행 자료의 하나인 『米歐回覽實記』의 지명 표기를 살펴보고 옛 일본식 표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영향을 받은 일본 관료들이 구미 회람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였는지 명치 초기 일본의 지명 표기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고에서 서양 지명의 표기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1977년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에서 간행된 문고판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田中彰 校注, 岩波文庫, 1977)를 사용하였다.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는 1878년 10월에 태정관기록과장판(太政官記録掛藏版)으로 출판된 이래 1880년 9월까지 총 3쇄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각 쇄에 따라 약간씩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나미 문고판(岩波文庫版)은 쇄별로 차이를 보이는 『미구회람실기』를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교주(校注) 및 해설을 달아 전 5권으로 출판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1878년 당시의 원본(原本²⁾)을 참고하면서 이와나미 문고판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본고에서 지명 표기 실태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米歐回覽實記』의 전문(全文)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당 서양 지명 표기를 추출하고 용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양 지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륙명과 국가명, 도시명, 지역명, 자연지명 등 5개 항목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특히, 시(市)를 포함한 대륙별 국가명과 도시명 및 해양, 산, 강, 호수, 폭포, 섬, 협곡, 사막 등과 같은 지형명으로 분류하여 서양 지명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조사 결과,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은 총 607개이며, 총 959개의 개별 지명에 대하여 총 13,431개의 표기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 표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구회람실기』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의 용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데이터 항목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각 서양 원어(原語)에 대한 지명 표제어, 문장(sentence) 단위의 용례문, 그리고 자료출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지명 표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현 옮김(2011) 『특명전권대사 米歐回覽實記 제3권 유럽대륙(상)』 소명출판, p.9
2) 久米邦武 編·田中彰 校注(1977)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全5册、岩波文庫

1>과 같다.

<그림 1>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미국」의 지명 표기

	A	B	C	D	E	F	G	H	I
1	서양 원어	지명 표제어	용례	용례출현	서명	저자	장르	발행처	출판년도
2	United States of America	米	#歐米ノ貿易起リシヨリ、#荷蘭佐ノ牧畜ハ、#米ノ秣草ヲ飼ヒテ、其數ヲ倍律シ、#英ノ職工ハ、米ノ棉花ヲ紡シテ、其產ヲ興シ	1卷-67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3	United States of America	米利加洲	往時#西國ノ#米利加洲ニ屬地ヲ有セントキハ、極メテ繁盛ノ都會ナリシニ、屬地ノ減スルニ從ヒ、	5卷-135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4	United States of America	米利堅 (メリケン)	#米利堅國ノ上頭ニ至ル、薄ヲ隔テ、#尼亞吉拉邑ヲ望ム、岡極險峻トシテ、翠嵐ヲ帶ヒ、且、濕ヒ且媚リ	1卷-282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5	United States of America	米洲	之ヲ要スルニ#米洲ハ、五大洲中ニ於テ尤モ平地多シト稱ス	1卷-57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6	United States of America	米國	#米國ノ人氣ハ、國王ノ權ヲ惜ムコト毒蛇ノ如ク、大統領モ國主ノ愛名ニヌキストテ、殊ニ有名ナル醫理ナド、烈シク之ニ抗議シタルトモ、竟ニ其理ニ服シ、華盛頓氏力此職ニアルナラバ	1卷-52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7	United States of America	米合衆國	#米合衆國、#西印度、#南亞墨利加ヨリ珠ル、其葉ハ色黒ミテ、其味ヒ辣シ、紙帶ト刻ハ草ハ、#露國及ヒ#土耳其ヨリ珠ル	2卷-132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8	United States of America	亞墨利加	此辺ヲ「シノボルド」ノ荒野ト名ク、元#亞墨利加少異トイヒシ所ナリ	1卷-131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9	United States of America	亞米利加洲 (アメリカ)	#西班牙ノ「コロンボス」力、#亞米利加洲地ヲ発見セシノ、實ニ我明應ノ時代ニテ、其事世ニ隨シナケレトモ、発見セシ地ハ、#北亞米利加合衆國ニハアラス、#北亞米利加ヲ初テ発見	1卷-51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10	United States of America	合衆國	#墨ノ大軍ヲサンタニ打破リ、#墨是科和陸ヲ乞ヒ、多ク辺界ノ壤地ヲ製キテ、#合衆國ニアタヘタリ	1卷-109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11	United States of America	アメリカ	此回ニ發スル飛脚船ハ、「#アメリカ」ト号ス	1卷-42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編	外國視察紀	東京：博聞社	1878年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 지명의 용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양 원어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일괄 정렬하고, 이 가운데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 대한 지명 표기를 추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표기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米」, 「米國」, 「米洲」, 「米利加洲」, 「亞米利加」, 「亞墨利加」, 「米利堅」, 「合衆國」, 「米合衆國」, 「アメリカ」 등과 같이 10가지의 지명 표제어와 함께 용례문 및 자료명 등의 자료 출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서양 원어에 대한 지명 표제어를 보면, 하나의 통일된 표기가 아닌 복수(複數)의 다양한 표기 형태가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米利堅」, 「亞墨利加」, 「亞米利加」와 같이 한자의 음(音)을 이용한 음역(音譯) 지명의 경우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亞墨利加」와 「亞米利加」에서 보듯이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었으며, 「米」, 「米洲」, 「米國」과 같은 약어(略語) 표기도 출현하였다. 또한, 「合衆國」이라는 의역(意譯) 지명 표기, 그리고 음역과 의역이 혼용(混用)된 「米合衆國」이라는 표기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외에도 총 600여개 지명에 대한 표기 형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명치기의 지명 표기 실태를 밝히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하, 옛 일본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후쿠자와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3.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자료와의 비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는 명치 시대에 활약한 계몽 사상가이자 교육가이다. 그는 명문 사학인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學)을 창설하여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으며, 신문 『시사신보(時事新報)』와 『메이로쿠(明六雜誌)』잡지를 발행하여 새로운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보급하는 일에 힘썼다³⁾.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1860년부터 1868년까지 에도 막부에 봉공(奉公)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막부의 견외사절단(遣外使節團)에 참가하였다⁴⁾. 1860년에 미·일통상조약 비준서(批准書)를 교환하기 위하여 견미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후, 1866년에 저술한 『서양사정(西洋事情)』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을 문명국으로 자립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세계 각국의 역사와 정치제도 등을 소개한 저작이다⁵⁾.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사정(西洋事情)』(1866)에서 서양의 풍속과 경제, 정치, 교육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 책은 서양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제도, 국정을 비롯하여 사회상이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인에게 서양 세계에 관한 입문서가 되었다⁶⁾. 특히, 여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지명 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명치 초기 서양 지명 표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866년 尚古堂에서 간행된 『서양사정(西洋事情)』初編, 外編, 二編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다음으로 『세카이구니즈쿠시(世界国尽, せかいくにづくし)』는 지리 계몽서이자 소학자용 초등 지리 교과서로서, 우리말로 옮기면 ‘세계의 온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이다. 『世界国尽』의 간행 목적은 아이들에게 세계의 지리 및 지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전 세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서로 세계 지리와 각 국가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869년에 발행된 초판(初版)은 초서체(草書體)로 쓰여 졌고, 1871년에는 초판 6冊과 합본(合本)한 3冊의 재판(再版)이 간행되었다. 1872년에 본문만을 모아 「素本」이 간행되었고, 1875년에는 한자와 가타카나가 혼용된 문장으로 쓰여진 「신지소훈(真字素本)」이 출판되었다⁷⁾. 본고

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편집위원회(1994), p.588

4) 源昌久(1997) 『福澤諭吉「世界国尽」に関する一研究-書誌学的調査-』 『空間・社会・地理思想2』大阪市立大学文学部地理学教室, p.4

5)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는 1861년 통역관을 맡게 되면서 33명의 견구(遣歐)사절단과 함께 유럽 5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 기행을 통하여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의회 정치의 형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문제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 임종원(2011) 『새로운 문명의 논리 후쿠자와 유키치』한길사, p.7

6) 『서양사정(西洋事情)』은 초편(初編) 총 3권과 외편(外編) 총 3권, 이편(二編)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편(初編)은 1866년에 간행되었고 1868년에 외편(外編)이, 1870년에 이편(二編)이 간행되었다.

에서는 1876년 新刻되어 福澤氏版에서 간행된 신지소훈(眞字素本) 『世界国尽』全 6卷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米欧回覽実記』와 『西洋事情』 및 『世界国尽』에서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발달된 제도와 문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양에 관한 지명 표기도 방대하게 망라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지명의 표기 형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점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 표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米欧回覽実記』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米欧回覽実記』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 표기와 일찍이 미국을 유람하고 서양의 발달된 제도와 문물, 풍습 등을 소개한 『西洋事情』, 초등 지리 교과서인 『世界国尽』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전통적인 일본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米欧回覽実記』의 지명 표기를 조사하여 『西洋事情』 및 『世界国尽』의 표기와 비교하여 보았다.

3.1 『米欧回覽実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

여기에서는 『米欧回覽実記』와 후쿠자와 유키치 자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⁸⁾.

『米欧回覽実記』에서는 총 607개의 개별 지명에 대한 대륙명과 국가명, 도시명 및 자연 지명이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자료인 『西洋事情』과 『世界国尽』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은 총 126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米欧回覽実記』와 『西洋事情』은 실제로 구미 각국을 방문하여 직접 서양 문명을 체험하고 작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지명 표기의 대상은 비교적 상세한 지역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분석 결과, 양 문헌에서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어 그 표기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총 48개로 38.0%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米欧回覽実記』와 후쿠자와 유키치 자료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지명 표기는 사용 문자에 따라 크게 한자와 가타카나 문자로 구분되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자 표기는 총 36개, 가타카나 표기는 총 12개 출현하였다.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를 제시하면, 「アラバマ(알라바마), ボストン(보스턴), ブロッセルス(브

7) 源昌久(1997). pp.3-4

8) 이하, 본고에서는 『西洋事情』과 『世界国尽』를 통틀어 ‘후쿠자와 자료’라고 칭하기로 한다.

워셀), ゼノア(제노바), メッツ(메츠), イリノイス(일리노이즈), ミチガン(미시간), ミスシッピー(미시시피), モラ비아(모라비아), ライン(라인), シベリヤ(시베리아), ワートルロー(위털루), 亜細亜(아시아), 中亞米利加(중앙아메리카), 北亞米利加(북아메리카), 南亞米利加(남아메리카), 歐羅巴(유럽), 北海(북해), 太平海(태평양), 地中海(지중해), 黑海(흑해), 裏海(카스피안해), 合衆國(미합중국), 不列顛, 大不列顛, 英國(영국), 噠國(덴마크), 日耳曼(독일), 普魯士(프러시아), 英倫(잉글랜드), 奧地利(오스트리아), 白耳義(벨기에), 佛蘭西(프랑스), 希臘(그리스), 羅甸(라틴), 羅馬(로마), 露西亜(러시아), 香港(홍콩), 蒙古(몽고), 印度(인도), 荷蘭, 和蘭(네덜란드), 葡萄牙(포르투갈), 彼得堡(상트페테르부르크), 蘇格蘭(스코틀랜드), 西班牙(스페인), 瑞典(스웨덴), 瑞西(스위스), 安南(베트남), 華盛頓(워싱턴), 喜望峯(케이프타운)」 등이 해당한다.

서양 지명의 표기 방법은 첫째, 가타카나를 사용하여 서양 원어에 맞게 원음 표기하는 방법과 둘째, 한자어를 매개로 하여 번역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번역법은 한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한자의 음을 이용한 음역법(音譯法), 한자의 의미를 이용하여 표기한 의역법(意譯法), 그리고 이들을 혼용한 음의역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양 문헌에서는 한자어 一字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음을 나타내는 음역에 의한 한자 표기가 63.9%로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양 원어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자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음이 같으면 글자를 빌려 쓰는 가차(假借)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또한,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에는 서양 원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각의 한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역 지명 표기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표기례를 제시하면 「合衆國(United States of America), 北極海(The Arctic Ocean), 大平海(Pacific Ocean), 地中海(Mediterranean Sea), 喜望峯(Cape of Good Hope), 黑海(Black Sea)」 등이 있다.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의역 지명 표기는 총 6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해양명에 해당하는 「地中海(Mediterranean Sea)», 「黑海(Black Sea)», 「太平海(Pacific Ocean)», 「北極海(The Arctic Ocean)」 등에 한하여서는 하나의 표기로 정착되어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敏東(Wang Min-Tung, 1995)에서 해양명에 대한 표기 방법은 의역에 의한 표기가 대부분이며, 지명 표기에 있어 의역된 지명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표기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예가 다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출현 지명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면,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에는 문명 개화의 중심지인 「영국(不列顛, 大不列顛, 英國)」과 「오스트리아(奧地利)», 「프러시아(普魯士)», 「프랑스(佛蘭西)», 「독일(日耳曼)」과 같은 구미의 주요 강대국과 유명 도시, 그 밖에 「아시아(亜細亜)», 「유럽(歐羅巴)», 「미국(合衆國, 北亞米利加, 南亞米利加)」 등 대륙명에 대한 표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표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도

일치하는데, 이 가운데 「獨逸(독일)」과 「露西亜(러시아)」, 「白耳義(벨기에)」에 대한 표기의 경우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가 아닌 일본에서 만들어낸 독자적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제시한 표기는 『米歐回覽實記』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인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래 중국에서 사용하던 중국 기원의 표기와 일치하는 표기도 출현하였지만, 「獨逸(독일)」과 「露西亜(러시아)」, 「白耳義(벨기에)」와 같이 독자적인 일본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 일본의 독자적인 표기 형태가 공존하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

여기에서는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분석 결과, 양 문헌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명 표기는 총 78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지명 표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쿠자와 유키치 자료 가운데 『世界国尽』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훈역에 의한 표기를 들 수 있다. 훈역이란 한자의 의미에 대응하는 일본어가 그대로 한자를 읽는 방법으로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역하는데 있어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훈(訓)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世界国尽』에 출현하는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가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世界国尽』에 나타나는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로서 「코르시카(Corsica)」, 「사르지니아(Sardinia)」, 「살바도르(Salvador)」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朝「コルシカ」島ト「サルヂニヤ」島トノ海峽ヲスキ、正午ニ北緯四十一度六分、巴黎ヨリ東經五
度十五分 (『米歐回覽實記』 第九十四卷 地中海航程ノ記 p.242)

凡二百余里南ノ方ニ地中海々岸近キ虎留鹿モ合セテ土地ノ廣大ハ魯西亞ニツヅク帝位ノ國人口
三千七百万 (『世界国尽』卷三 p.10-後面)

瀬戸ヲ廻レババリル馬里留嶋東ノ方ノサルヂニヤ猿路仁屋獅子越テ伊太里國細ク長ク長靴ニ國ノ状ヲ擬テ

獅子^{シシリヤ}里嶋ハ靴先ノ指ノ處ニアタルラン (『世界国尽』卷三 p.12-前面)

印度、爪哇、「サンサウェトル」<中亜米利加ノ一部>、及ヒ呂宋^{ルソン}ノ馬尼刺^{マニラ}ヨリ産出スルヲ輸入シテ盛ニ製作ス、 (『米歐回覽実記』第二十九卷 漫識特府ノ記 p.175)

西ノ世界ヲ探ル時始メテ見エシ^{サルワドル}猿^{アメリカ}和土留亞米利加^{ダニモ}未ダ見ズ大平海ノア란トハ夢ニモ知ラズ此島ヲ印度^{インド}ノ端ト認メテ人ニ告ゲタル (『世界国尽』卷四 p.20-後面)

위의 용례문에서 볼 수 있듯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코르시카(Corsica)」, 「사르지니아(Sardinia)」, 「살바도르(Salvador)」라는 지명에 대하여 서양 원음에 적합한 가타카나 문자를 사용하여 원음 표기하였다. 이에 반하여, 『世界国尽』에서는 한자를 매개어로 한 번역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부는 훈(訓)으로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음(音)으로 읽어 훈역과 음역이 혼용된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코르시카(Corsica)」에 대한 표기의 경우 「虎留鹿」로 적고 있는데, 끝 음절에서 보듯이 일본어 훈(訓)으로 읽었을 때 「シカ」로 발음되는 「鹿」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나머지 [co] 음절과 [ru] 음절은 각각 음역하여 「虎」, 「留」로 표기하였다. 또한, 「사르지니아(Sardinia)」와 「살바도르(Salvador)」에 대한 표기 역시 마찬가지로 『米歐回覽実記』에서 가타카나로 원음 표기하고 있다면, 『世界国尽』에서는 일본어 훈(訓)으로 읽었을 때 「サル」로 발음되는 「猿」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훈역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고유의 표기 방식인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는 「수에즈(Suez)」와 「브라질(Brazil)」에 대한 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英国ノ会社ヨリ、国王ニ条約シ、鉄路ヲ築キ、「カイロ」府ヲスキ、^{シユエス}蘇土ノ埠頭ニ達シ、以テ地中海、及ヒ紅海ノ郵船、及ヒ商船ノ往来ノ郵所トナセシヨリ、当府ノ繁庶ハ、年ヲ追テ盛ナリ、 (『米歐回覽実記』第九十四卷 地中海航程ノ記 p.252)

其國々ヲ計フルニ亞細亞洲ノ境ナル^{アジヤ}末洲^{スエス}ノ西ノ衛士府都ハ^{エジプト}阿非利加^{アフリカ}ノ一大國其古ハ土留古^{トルコ}ヨリ支配ヲ受ケシ土地ナレド今ハ離レテ獨立國 (『世界国尽』卷二 p.5-後面)

遂ニ中ヨリ^{かんがい}勸解ヲナシ、以太利、^{ブラジル}伯爾西及ヒ瑞士ノ三国ヨリ、委員ヲ派シ、此庁内ニテ、米英二國ノ委員ト、会同相議シ、(『米歐回覽実記』第八十六卷 「베론」及ヒ「ゼ네ーヴァ」府ノ記 p.107)

人ノ助ヲ蒙ラズ不羈獨立ノ^{フフシリ}武良尻^{アメリカ}ハ人口七百七十萬亞米利加洲ノ南方ニ比類少キ一帝國土地ノ廣サニ較レバ人口未ダ多カラズ (『世界国尽』卷五 p.22-前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듯이,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수에즈(Suez)」라는 표기에 대하여 각 음절에 한자 一字를 대응시키는 음역의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면, 『世界国尽』에서는 [sue]라는 서양 원음에 대하여 훈(訓)으로 읽었을 때 「스즈」로 읽는 「未」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브라질(Brazil)」에 대한 표기 역시 마찬가지로 『世界国尽』에서 [zil]이라는 원음을 나타내는데 있어 일본어 훈(訓)으로 읽었을 때 「シリ」로 발음하는 「尻」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 구별되는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표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한자를 훈(訓)으로 읽는 방법과 음으로 읽는 방법이 구분되는 이유는 일본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世界国尽』는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소학교용 지리 교과서이기 때문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중국 한자음이 아닌 일본 한자음에 기초한 지명 표기를 고안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를 만들어 냈지만 이러한 표기 방법은 이후 보급되지 않았으며, 『米歐回覽實記』에서도 출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일본 고유의 표기법인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의 영향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는 해당 지명을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하는데 있어서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North America)」에 대하여 「北亞米利加(キタアメリカ)」로 표기하여 서양 원음대로 읽지 않고, 「北」이라는 한자를 훈(訓)으로 읽어 「キタ」로 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자를 일본어 훈(訓)을 이용하여 읽는 일본의 독자적인 표기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자를 일본어 훈(訓)으로 읽는 것은 『世界国尽』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표기 형태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 「멕시코(女喜志古)」, 「캐나다(金田)」, 「캘리포니아(雁保留仁屋)」, 「아라비아(荒火屋)」 등이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에 해당한다.

둘째,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에서는 서양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사용 문자와 표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자어를 매개로 하여 번역의 방법으로 표기된 지명을 살펴보면, 한자의 음을 이용한 음역 지명 표기가 상당수 나타난다. 그렇지만, 음역의 방법으로 서양 지명을 표기하게 되면 각 음절에 하나의 한자가 대응됨에 따라 그 표기 형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米歐回覽實記』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양 원음을 음역하는 방법 이외에도 의역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함으로써 보다 간결한 지명 표기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렇다면 사용 문자와 표기 방법에 있어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유키치 자료에서 어떠

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용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米歐回覽実記』에서는 「그린란드(Greenland)」라는 지명에 대하여 「綠洲」로 표기하고 있다면, 『世界国尽』에서는 「具理陰蘭土」로 표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館中ニ集蓄シタル物ハ、歐羅巴ノ北洋中ナル、^{アイスランド}氷洲、^{グリーンランド}綠洲、又東西印度、南東洋ノ諸島等異俗ノ国ヨリ、諸物ヲ集メテ排陳シタルモアリ、是ヲ民種學ノ博物館ト名ツク、
(『米歐回覽実記』第六十七卷 噠馬国ノ記 p.146)

支配ノ土地ハ廣ケレド人民僅五六萬寒氣嚴シク土地ヤセテ人ノ稼ハ漁獵ノミ東ノ方ヘ離レタル
^{グリーンランド}具理陰蘭土 ^{이스란드}伊須蘭土 (『世界国尽』卷四 p.22-前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듯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그린란드(Greenland)」에 대하여 서양 원어의 의미가 반영된 한자를 사용하여 「綠洲」와 같이 의역의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반하여 『世界国尽』에서는 「具理陰蘭土(グリーンランド)」와 같이 서양 원어음을 음절별로 구분하여 각 음절에 맞는 하나의 한자를 대응시키는 음역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같은 예로서 「아이슬란드(Iceland)」에 대한 표기 역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위의 용례문에서 보듯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Ice」라는 서양 원어의 의미가 반영된 한자 「氷」을 사용하여 「氷洲」와 같이 의역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그렇지만, 『世界国尽』에서는 「伊須蘭土(이스란드)」와 같이 서양 원어음의 각 음절에 한자 一字를 대응시키는 음역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世界国尽』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일단 한자를 사용하여 지명을 음역 표기하고, 이에 대한 독법(讀法)을 가타카나로 병기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볼 때, 『世界国尽』에 나타나는 「具理陰蘭土(グリーンランド)」, 「伊須蘭土(이스란드)」라는 표기는 서양 원어인 「그린란드(Greenland)」와 「아이슬란드(Iceland)」를 먼저 가타카나로 적고, 각 음절에 대응하는 한자를 음역하여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 문자면에 있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가타카나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世界国尽』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여 음역한 표기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톡홀름(Stockholm)」에 대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リュベツク」「ステッチン」「コーニングス」堡ハ、日耳曼北部ノ要港ナリ、其北ニハ露国ノ東海ニ「リガー」港、芬蘭灣ニ^{セントピートルホルム}聖彼得堡港、及ヒ瑞典「ストツクホルム」ノ諸港アリ、
(『米歐回覽実記』第九十卷 歐羅巴洲地理及ヒ連漕総論 p.171)

西ノ都ハ^{キリスチヤナ}錐須知屋奈東ハ^{ストックホルム}須德保留武トテ共ニ劣ラヌ繁華ノ地二國ノ人ヲ合スレバ其數四百三十萬北地ノ氣候寒クシテ開ケシ土地ハ稀ナレド五穀菓實ヨク登ノリ山ヨリ出ル金類ノ中ニモ鉄ハ各別ニ世界無類ノ名品ナリ
(『世界国尽』卷三 p.14-後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톡홀름(Stockholm)」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米歐回覽実記』에서는 가타카나 「ストックホルム」로 표기하였다면, 『世界国尽』에서는 「須德保留武(ストックホルム)」와 같이 서양 원음을 가타카나로 읽고 각 음절에 대응하는 한자를 음역하여 표기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표기로서, 「세인트 헬렌 섬(Saint Helena Island)」과 「워털루(Waterloo)」지역에 대하여 『米歐回覽実記』에서 가타카나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世界国尽』에서는 서양 원음의 각 음절에 하나의 한자를 일일이 대응시키는 음역의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양 문헌에서 이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是ハ、^{でいせきしよく}積赤色ノ粉ニテ、^{ほぼ}略英国「セントヘーレン」ニテ見ル所ニ同シ、彼場ニテハ床動キ、磨刷ハ動カス、此場ハ之ニ反セリ、
(『米歐回覽実記』第五十一卷 白耳義国ノ記 下 p.202)

「ワートルロー」ニテ分捕ノ旗、白絹ニ金文ヲ書セルモノナリ、其他諸戦ノ捕獲甚タ多シ、普国ハ二百年來、戦伐甚タ多キヲ以テ、庫中ニテ人ニ誇耀ス、
(『米歐回覽実記』第五十九卷 伯林府ノ記 中 p.332)

西ニ廻レバ^{ワルダ}輪留田ノ南一千里淋シキ^{シントヘレナシマ}新都邊禮奈島島ニ名所ハナケレドモ^{フランスクワウテイ}佛蘭西皇帝、
^{ナポレオン}奈保禮恩、^{ワートルロウ}和阿戶留樓戰ニ運命薄ク打負テ流罪ニナリシ由來ヨリ島ノ名譽モ聞ヘケリ
(『世界国尽』卷二 p.8-前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듯이, 『米歐回覽実記』에서 서양 원음에 맞게 가타카나 문자를 사용하여 「セントヘーレン」, 「ワートルロー」와 같이 표기하였다면, 『世界国尽』에서는 「세인트 헬렌 섬(Saint Helena Island)」에 대하여 「新都邊禮奈嶋(シントヘレナシマ)」로 표기하여 음절별로 구분된 서양 원음에 한자 一字를 대응시켜 음역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Saint」라는 부분을 음역하여 「新都(シント)」라고 표기하거나, 「워털루(Waterloo)」지역에 대하여 「和阿戶留樓(ワートルロウ)」로 표기하여 첫 음절의 장음 부분까지 한자 「阿(ア)」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은 서양 원음에 대하여 가타카나로 적고 여기에 대응하는 한자를 표기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양 원음의 각 음절에 한자를 대응시키는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올덴부르크(Oldenburg)」에 대한 표기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薩撒、^{ボヘミヤ}波希米、^{ウルテンボルグ}巴威里、瓦敦堡及ヒ「モラヒヤ」ノ如キ、ミナ高原ヲシメルコト五六千、^乃至一
方方英里^{マイル}平地ハ、^処処ニ多ク、其山脈ノ線瓦セル所モ、人蹟ヲ絶ニハ至ラサルナリ、
(『米歐回覽実記』第九十卷 歐羅巴洲地理及ヒ運漕総論 p.162)

南ノ方ノ小國ハ^{ウルテンボルフ}宇留天保呂富^{バワリヤ}馬和里屋等西ノ境ノ^{レインガハ}禮陰河其源ヲ尋レバ山阪高カキ^{スキツル}端西國ノ政事
ハ共和政小國ナレド一様ニ文字ノ教ノ繁昌シ
(『世界国尽』卷三 p.13-後面)

위의 용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올덴부르크(Oldenburg)」에 대하여 『米歐回覽実記』에서는 한자와 가타카나를 혼용하여 「オルテン堡」로 표기하기도 하고, 「瓦敦堡(ウルテンボルク)」와 같이 한자만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즉, 「올덴부르크(Oldenburg)」에 대하여 「瓦敦堡, 올덴堡」로 표기하여 서양 원어의 「burg」라는 부분을 ‘성곽, 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堡」를 사용하여 의역 표기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世界国尽』에서는 「올덴부르크(Oldenburg)」라는 서양 원음을 가타카나로 읽고 여기에 대응하는 한자를 일일이 음역하는 방식으로 「宇留天保呂富(ウルテンボルフ)」로 표기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서양 원음의 「burg」라는 음절에 대하여 『米歐回覽実記』에서는 「堡」라는 한자로 의역 표기함으로써,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음역 지명 표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世界国尽』에서는 「保呂富(보르프)」와 같이 서양 원음의 각 음절을 모두 음역하여 한자를 대응시키는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 대한 표기 역시 양 문헌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西班牙、以太利、土耳其、及ヒ露西亞ノ南部ニ於テハ、氣候物産、^{ほぼ}粗熱帶国ニ近シ、露国^{セントペートルブルク}聖彼得堡ハ、六十度ニ近キ高度ニ位スレトモ、夏季ノ熱ハ英国ヨリ甚タシ
(『米歐回覽実記』第九十一卷 歐羅巴洲氣候及ヒ農業総論 p.177)

^{ストックホルム}須德保留武ノ港ヨリマギレ路ナキ眞東ハ^{ロシア}帝國魯西亞ノ都ナル^{シントペイトルボルフ}新都平土留保留府ナリ抑モ魯西亞
ノ領分ハ^{アジア}亞細亞^{アメリカ}亞米利加^{エウロパ}歐羅巴三大洲ニ跨ガリテ東西二千九百余里南北凡一千里
(『世界国尽』卷三 p.14-後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듯이,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 대하여 『米歐回覽実記』에서는 「聖彼得堡」와 같이 「burg」에 해당하는 부분을 「堡」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표기하였다면, 『世界国尽』에서는 서양 원어음의 각 음절에 하나의 한자를 대응시켜 「新都平土留保留府(シントペイトルボルフ)」로 표기하였다.

이때 『米歐回覽美記』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의 첫 음절도 ‘거룩한’ 또는 ‘성스러운’의 뜻을 나타내는 「聖」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의역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그렇지만 『世界国尽』에서는 「Saint」라는 서양 원어음을 「新都(シント)」라는 한자로 음역 표기하였다. 이것은 「세인트 헬렌 섬(Saint Helena Island)」에 대한 표기인 「新都邊禮奈嶋(シントヘレナシ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Saint」라는 원어음을 가타카나 표기인 「シント」로 읽고 각 음절에 맞는 한자를 대응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양 원음을 자국의 문자인 가타카나로 적고 여기에 맞는 한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일본 자국음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종래 사용하던 전통적인 중국 계통의 한자 음역 표기를 쓰지 않고, 알기 쉬운 새로운 한자로 바꾸어 표기한 것은 독자층을 고려한 표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米歐回覽美記』에서는 음역의 방법만으로 서양 지명을 표기하게 되면 그 표기 형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역하거나, 음역과 의역을 혼용함으로써 보다 간략한 지명 표기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사용한 眞字素本 『世界国尽』에 한하여서는 사용 문자와 표기 방법에 있어 오로지 한자를 사용하여 일관되게 서양 원음의 각 음절에 하나의 한자를 대응시키는 음역의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후쿠자와 자료에서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를 따르는 반면, 『米歐回覽美記』에서는 일본 한자음에 맞는 새로운 표기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와 「아프리카(Africa)」에 대한 표기가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亜刺伯、亞弗利加ノ炎皞ハ、露境ニ流ルルモ、独逸ニ感觸少シ、仏国、西班牙国ハ、山脈南北ヲ互ルコト多キヲ以テ、独逸ノ東西ニ綿互セル山ヲ遮蔽スルヨリ、温熱ニ感スルコト強キカ如シ、
(『米歐回覽美記』第九十一卷 歐羅巴洲氣候及ヒ農業總論 p.178)

南及印度海、有东京、暹罗、北耳西海隅、北及北水海、东及太平海与其海隅、西连欧罗巴大地及地中海、有微地与亞非利加大地相连、又及于红海隅与印度海也。
(『海國圖志』卷五 p.349)

世界ハ廣シ萬國ハ多シトイヘド大凡ソ五ニ分ケシ名目ハ^{アジヤ}亞細亞、^{アフリカ}阿非利加、^{エウロッパ}歐羅巴北ト南ノ^{アメリカ}亞米利加ニ堺カギリテ^{タイヤウシウ}五大洲大洋洲ハ別ニ又南ノ嶋ノ名稱ナリ
(『世界国尽』卷一 p.1-前面)

亞非利加ノ南方ニボスマントテ一種ノ野民アリ其民嘗テ世ニ政府ノアルコトヲ知ラスト云ヘリ
然レドモ其政府ナキハ元來土地廣ク人口少クシテ相集ルコト稀ナルガ故ナリ

(『西洋事情』 外編 卷一 p.31-前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는 「아프리카(Africa)」(āfēilǐjiā)라는 지명에 대하여 「阿非利加」로 표기하였다. 중국에서 사용하던 「阿非利加」라는 표기는 『해국도지(海國圖志)』가 전래된 이후 일본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일본에서는 「非」[fēi]라는 한자를 [hu]로 발음하기 어려웠으므로 「아프리카(Africa)」라는 본래의 발음과 연관성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서양 원음에 보다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弗」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亜弗利加」라는 지명 표기를 새롭게 고안해낸 것이다.

이처럼 가차(假借) 용법이 사용된 지명 표기는 중국어음으로 읽었을 때에는 서양 원어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만,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원래 발음과 동떨어져 실제 나라 이름과의 연관성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서양 원어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한자로 표기할 때 중국 한자음이 아닌 일본 한자음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후쿠자와 자료에서는 『해국도지(海國圖志)』에 나타나는 표기와 동일한 형태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종래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한 표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라는 지명은 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의 한역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저술된 이후에 발견된 대륙이었으므로, 『米歐回覽実記』에 출현하는 표기는 다른 서양 지명에 비하여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표기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⁹⁾. 일본 자료와 중국 자료에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한 한자 표기와 관련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鉞産^{また}モ亦富メリ、中ニ就^{シベリヤ}テ細白里ノ金鉞ハ、米ノ加利福尼^{カリホーニヤ}ト、英領^{オーストラリヤ}豪斯多辣利^{オーストラリヤ}ト、世界三大鉞
ノ一タリ、又烏拉^{ウラル}山脈ノ兩側ニモ、黄金ト白金トヲ出ス、白金ノ鉞ハ、露西亞ノ其利ヲ独リス
ル所ナリ、
(『米歐回覽実記』 第六十一卷 露西亞国総説 p.30)

乃建设埔头, 名之曰澳大利亚, 又称新荷兰。旋为佛郎西所夺, 佛人寻弃去。最后英吉利得之,

9)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라는 지명 표기는 1801년 영국의 해군 장교 매튜 플린더스(Matthew Flinders)가 작은 배로 이 대륙을 일주한 다음 귀국하여 모험 보고를 하면서 육지의 이름을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라 부르자고 제안한데서 비롯되었다.

因其土地之廣，堅意垦辟。 (『海國圖志』卷十六 p.595)

澳大利亞。一名新荷蘭。在亞細亞東南洋巴布亞島之南。周廻約萬餘里。
(『瀛環志略』東南洋各島 p.24)

英吉利領ノ^{イギリス}澳大利亞^{オーストラリア}東西千里南北ノ廣キ處ハ八百里人口一百四十萬廣キ內地ノ有樣ヲ探リシ人
モ稀ナレド物ヲ生ズル土地多ク新發明ノ金ノ山五大洲ニ比類ナキ^{カリホルニヤ}雁保留仁屋ノ右ニ出デ年ニ積
出ス黃金ハ幾千萬ノ限ナシ (『世界国尽』卷六 p.24-前面)

右ノ外英國ニハ海外所領ノ地多シト雖ドモ其模樣ク印度ニ異ナリ亞米利加^{オウスタラリヤ}澳大利亞^{オウスタラリヤ}等ノ領地ヘ
ハ英ノ本國ヨリ家ヲ移シタルモノ多シ (『西洋事情』外編 卷一 p.39-後面)

위의 용례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하여 『米玖回覽実記』에서는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양 원음에 맞는 한자를 대응시켜 「豪斯多辣利」라는 새로운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후쿠자와 자료에서는 『海國圖志』와 『영환지략(瀛環志略)』 등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에 나타나는 표기와 일치하는 표기를 쓰고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중국 계통 표기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용례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음절별로 사용된 한자를 살펴보면 『米玖回覽実記』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의 첫 번째 「au」 음절에 대하여 중국 자료의 「澳」[ào]라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豪·濠」[hào]로 표기하였다. 『米玖回覽実記』에서는 「오스트리아(Austria)」에 대한 표기로서 이미 「澳」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표기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명에 따라 한자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한 표기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형상의 특징이 반영되어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 「豪·濠」라는 한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濠」라는 한자는 ‘크고 두둑다’는 뜻으로 성벽의 둘레에 물고랑을 둔 형상을 의미한다. 항해술이 발달한 일본 무역선이 100여 년 전 동남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커다란 섬을 답사하다 보니 자원이 풍부하고 넓어서 마치 대륙과 같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의미를 지닌 「濠」라는 한자를 선택하여 표기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¹⁰⁾. 王敏東(1995)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하여 「豪·濠」로 시작되는 표기는 1900년대 중국 자료에도 소수 보인다고 그 예를 제시하면서 일본 표기의 중국 표기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한 표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중국 자료에서는

1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편집위원회(1994), pp.197-198

「澳大利亞」와 같이 4음절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豪斯多刺利,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 豪斯多刺利厘」 등 5음절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 자료에서 「澳大利亞」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의 「s」음절을 표시하지 않은 4음절 표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米歐回覽実記』에서는 「豪斯多刺利,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 豪斯多刺利厘」와 같이 자음「s」에 모음「u」를 첨가하여 하나의 독립된 음절「斯」로 표기한 5음절 표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일본어의 기본적인 음절 구조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개음절(open syllable) 구조이다. 대조적으로 영어는 폐음절(closed syllable)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 원어가 일본어에 유입될 때에는 모음이 첨가되는 개음절화 규칙이 적용된다¹¹⁾. 따라서 「澳大利亞」의 4음절 표기가 『米歐回覽実記』에서 5음절 이상의 표기로서 음절이 추가되어 나타나는 것은 서양 원음을 외래어로 받아들여 일본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개음절화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a] 음절에 대하여 중국 자료에서는 「大」라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米歐回覽実記』에서는 「多」로 표기되고 있다. 이들 한자를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大」는 [だい]로 발음되고, 「多」는 [た]로 발음되기 때문에 『米歐回覽実記』에서는 서양 원음에 근접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a] 모음으로 끝나는 「多」라는 한자로 바꾸어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米歐回覽実記』에 사용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 대한 표기는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어의 음절 구조 및 음운 체계에 맞게 독자적으로 고안한 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米歐回覽実記』에서는 일부 지명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 한자음에 맞는 새로운 한자로 표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후쿠자와 자료에서는 종래 중국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조사에 한하여,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와 「아프리카(Africa)」에 대한 표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도 옛 일본식 표기의 영향도 받지 않고 『米歐回覽実記』에서 새롭게 독자적으로 고안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西洋事情』에서는 『米歐回覽実記』에 비하여 한자보다는 가타카나 문자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관련된 지명 표기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1) 개음절화 규칙이란 연속하는 자음간의 모음 삽입 및 어말(語末) 자음에 대한 모음 첨가에 대한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first」에 대한 가타카나 표기의 경우 2개의 자음 [s], [t] 뒤에 적절한 모음이 삽입되어야 한다. 小林ミナ(1997) 「日本語学習者は英語をどう開音節化するか:英語を母語としない初級学習者の場合」『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1』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55-56

<표 1> 『西洋事情』과 『米歐回覽実記』에 나타나는 서양 지명 표기

	『西洋事情』	『米歐回覽実記』
Boston	보스턴	波士敦
Brazil	브라질	伯爾西
Canada	캐나다	加拿他, 加拿佗, 加那他
Danube River	다뉴브河	多惱河
Egypt	에지프트	埃及
Finland	핀란드	芬蘭
Madrid	마드리드	馬德里
Mexico	멕시코	墨是哥, 墨是科
Mississippi River	미시시피	密士失比河, 密河
Moskva	모스크바	莫斯科
New York	뉴욕	新約克
Normandie	노르망디	諾曼的
Persia	페르시아	波斯, 伯爾察巫, 伯爾齊巫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費拉特費
Poland	폴란드	波蘭
Rhein River	라인	來因
Siberia	시베리아	細白里, 細白里巫
Lyon	리옹	里昂
Hannover	하노버	哈諾威
Hamburg	함부르크	旱堡
Edinburg	에딘부르크	奘丁堡
Braunschweig	브라운슈바이크	不倫瑞
Sumatra	섬다라	蘇莫荅刺
Vienna	빈	維納, 維也納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米歐回覽実記』에서 한자 표기를 사용하였다면, 『西洋事情』에서는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米歐回覽実記』의 한자 지명 표기가 『西洋事情』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된 비율은 23.7%로 나타났다. 특히, 페르시아(Persia)와 이집트(Egypt)와 같이 일찍이 불교 경전이나 한적(漢籍)에 등장하여 한자 사용이 일반화된 지명에 대하여서도 『西洋事情』에서 가타카

나로 표기한 것은 특징적이다¹²⁾. 즉, 페르시아(Persia)에 대하여 한자를 사용한 「波斯, 伯爾察厘, 伯爾齊厘」가 아닌 가타카나 「ペルシヤ」로 표기하였으며, 이집트(Egyp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래 사용하던 한자 표기「埃及」이 아닌 「エジプト」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독자층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을 유람하고 작성한 『西洋事情』에서는 방문한 지역의 각 곳에 대한 상세한 지명에 대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보다는 가타카나 문자를 선호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米歐回覽實記』를 편수한 구메 구니타케는 에도 시대의 한학자로서 일찍이 한역서(漢譯書)를 통하여 서양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구미 각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西洋事情』에 비하여 한자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이상,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와 후쿠자와 자료의 표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중국 계통 표기와 일본식 표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훈역의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이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훈역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표기로서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米歐回覽實記』에서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결국 일본 자료로서 후쿠자와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기인 훈역 표기는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표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사용된 표기례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한 「호주(豪洲)」라는 표기는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에 한하여서는, 기존에 중국 자료와 일본 자료에서 사용하던 표기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든 표기로서 현재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米歐回覽實記』는 공적 자료로서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표기 형태가

12) 서양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게 된 배경은 「天竺(인도)」, 「波斯(페르시아)」 등과 같이 불경(佛經) 속의 지명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던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한역불전(漢譯佛典)이 전래된 이후 중국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중국에 서양 세계가 소개된 이후에는 한역된 서양서적을 통하여 서양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도 받아들였다.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지명이 현대 사전에도 표제어로 수록되어 표준 어형으로서 현재의 지명 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米歐回覽實記』는 오늘날 사용되는 지명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 명칭의 지명 표기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후쿠자와 자료에서 가타카나 표기가 다수 출현한 것은 오늘날 서양 지명의 주된 표기 문자인 가타카나 표기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參考文獻】

- 구메 구니타케 지음, 박삼현 옮김(2011) 『특명전권대사 米歐回覽實記 제3권 유럽대륙(상)』 소명출판, p.9
임종원(2011) 『새로운 문명의 논리 후쿠자와 유키치』한길사, p.7
李漢燮(2001) 「西遊見聞에 쓰여진 外國地名 및 人名의 漢字表記에 대하여-日本式 表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의 세계』박이정, pp.307-331
鄭英淑(2000) 『開化期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 研究』中央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p.35
小林ミナ(1997) 「日本語学習者は英語をどう開音節化するか:英語を母語としない初級学習者の場合」 『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1』北海道大学留学生センター, pp.55-56
源昌久(1997) 「福澤諭吉『世界国尽』に関する一研究-書誌学的調査-」 『空間・社会・地理思想』2, 大阪市立大学文学部地理学教室, pp.2-18
王敏東(1995) 『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研究』大阪大学博士學位論文, p.63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要旨〉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서양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후쿠자와 유키치 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고는 명치기 서양 지명의 표기 실태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米歐回覽實記』와 후쿠자와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옛 일본식 표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 표기와 『世界国尽』(1869), 『西洋事情』(1866)의 표기와 비교 검토한 결과, 동시에 출현하는 서양 지명은 총 126개이며 그 표기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례는 총 48개로 38.0%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훈역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표기로서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米歐回覽實記』에서 훈역에 의한 지명 표기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米歐回覽實記』에 출현한 「豪洲」라는 표기는 기존에 중국과 일본 자료의 표기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든 표기로서 현재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米歐回覽實記』는 공적 자료로서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표기 형태가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지명이 현대 사전에도 표제어로 수록되어 표준 어형으로서 현재의 지명 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米歐回覽實記』는 오늘날 사용되는 지명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 명치기의 지명 표기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foreign place notation in 『Beioukairanzitki』
-by comparing with Fukuzawa Yukichi's notation-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oreign place notation in Meiji era and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place notation in Meiji era and old Japanese notation by comparing with the documents in 『Beioukairanzitki』 and those in Fukuzawa. The comparison between place notation appearing in 『Beioukairanzitki』 and that in 『Sekaikunizukusi』(1869) and 『Seiyouzizyou』(1866) found that the place notations that co-occur are 126 in total and that the examples of perfectly the same were 48 in total, which consists of 38% of total rate of concordance. It is clear that the liberal translation notation Fukuzawa Yukichi used for place notation is very unique and of Japanese own differently from Chinese originated notations. However, there appears no place notation by liberal translation notation in 『Beioukairanzitki』, nor is it used at present. On the contrary, the notation of 「豪洲」 appearing in 『Beioukairanzitki』 does not conform to the notation system conventionally used in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It was invented on Japanese own and has been in use up to the presen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presumed that 『Beioukairanzitki』 is an official document, in which the conventional notation of the time was employed. This place name has been contained in the current dictionary as standard word form and has had effect on the current place notation. Hence, 『Beioukairanzitki』 has been found to be a valuable document containing place notation of Meiji era that has influenced on the current place notation.